

할 때일수록 적정 난가를 고수할 수 있는 지구력을 기르고, 이러한 연구노력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에 대해 더 나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요구를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압력단체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그렇다면 사양관리개선 노력만으로 난가안정을 위한 능력배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축산물의 유통구조는 전체적으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으나 특히 양계산물의 경우 두드러져 조금만 생산과잉이 되어도 난가가 급락하고 공급이 부족되면 금방 난가가 회복되는 단주기 현상이 반복되어 적정 규모의 부화 및 육추수수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수집상 몇 사람에게 의해서 적정가격이 아닌 -생산자, 소비자 누구도 원

치 않는 가격 - 조작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비정상적인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직시해 볼때에 정당한 적정난가 결정의 주도권을 생산자가 조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에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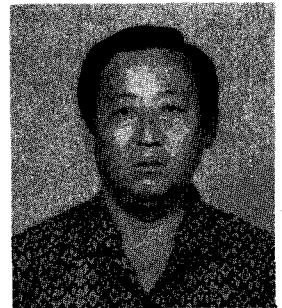
한편 현재의 계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식란이외의 가공식품개발이 전무한 상태로 난가공 산업이 가지는 계란의 수급 조절기능(식란의 대규모 저장시설, 제품의 장기보관 특성)과 소비패턴의 다양화 유도로 계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으므로 대규모의 식란저장 시설을 갖춘 난가공업체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액란 및 건조분란 등의 신제품개발로 소비자층을 두껍게 하고 부수적으로 계란에 대한 이미지개선 및 효과적인

수급조절기능을 수행게하여 난가불안정요인을 상당부분 자체 흡수 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난가의 적정가격 하한선을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즉, 최저 평균생산비 수준에서 조정하고, 그 상한을 관련물가를 참작하여 소비자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하여 난가변동의 폭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분기별 평균 생산비를 산출, 난가상승시 일정 비율의 난가안정기금을 적립하여 난가 하락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관계당국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이와같은 배경아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련단체가 힘을 합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난가안정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계란 도매시장 설립 난가 안정기금조성 필요

구 본 영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 이사)



자 유경제체하에서의 물가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에 의하여 결정되며, 계란의 가격도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

여 가격안정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도매시장의 설립

모든 공산품이나 농축수산물 은 모두 도매시장이 있어 그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나 오직 계란만이 도매 시장이 없으므로 해서 상인들의 조작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폭등과 폭락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가격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자는 피해를 당하고 상인만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현실인바 도매 시장의 설립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계란가격안정기금의 조성

정부의 지원과 양계인의 협조로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폭락할 때에 가공, 비축하고 폭등할 때에는 방출하여야 할 것이다.

3. 중량판매(重量販賣) 제도의 실시

모든 축산물이 중량판매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계란만이 등급 판매를 하고 있어 농장에서의 특란이 왕란으로, 대란이 특란으로 둔갑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상인만이 이윤을 취하게 되므로 중량판매제도를 조속히 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지금까지 양계인들은 생산만을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속

에서 살아 왔으나 타 제품과의 소비경쟁이 치열한 현시점에서 는 왜 계란을 먹어야 하는가를 매스컴을 통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5. 후불 장기제도의 철폐

계란가격이 하락할 때에 일부의 악덕상인들을 계산서를 끊지 않고 후일에 계산하는 상인들이 있는바 이는 계란가격의 안정을 해하고 생산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양계인의 단합된 힘으로 이를 없애야 할 것이다.

6. 고시가와 생산자가격의 일치 실현

현재의 계란가격은 고시가와 생산자 가격간에 2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상인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으나 현재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계란 가격지수만을 높여주고 있는 실정인바 두 가격의 일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7. 계란가격고시의 일원화

현재 계란가격의 고시는 몇몇 사람의 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경우가 많아 양계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계란의 가격고시는 전농(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기대할수 없는 것이니 양계업자들의 경제활동의 주체인 서울경

기양계협동조합으로 일원화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해 나감에 따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기 위하여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대동단결하여 압력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양계인들은 단결은 커녕 서로 헐뜯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는 것이 양계업자들 아닌가?

전국의 양계인 여러분!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권리를 향유할수 없다는 법언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양계 풍토에서 누가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며 누가 계란가격의 안정을 이루어 주겠는가? 우리모두 대동단결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 나갈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계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위에 기술한 나의 제안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나 우리 양계인들이 대동단결하여 계란 개당 10전~20전씩만 출연한다면 계란가격은 안정될 것이며, 우리들의 권익은 보호될 것이다.

전국의 양계인 여러분!

우리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기 위하여 대한양계협회와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으로 솔선하여 모읍시다. <원고 도착순>